

# 삼국시대 고분출토 식리에 관한 소고 (三國時代 古墳出土 飾履에 관한 小考)

尹 根 一  
(문화재연구소)

## 1. 머리말

한반도(韓半島)에서는 선사시대(先史時代) 분묘(墳墓)에서부터 삼국시대(三國時代) 고분(古墳)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신구들이 발굴 조사에 의하여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그 시대(時代)의 특징적인 장신구(裝身具)로서 우리의 주목(注目)을 끌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삼국(三國)중 고구려(高句麗)의 경우 문헌(文獻)을 북한(北韓)이나 중국(中國)의 고문서에 의존하여야 하고 특히 자료의 불충분이 어려운 문제에 있다. 그렇다고 북한(北韓) 자료나 중국(中國)의 고문서(古文書)를 믿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백제(百濟)의 경우는 백제(百濟)의 분묘(墳墓)가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신라지역(新羅地域)에서만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성행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백제지역(百濟地域)에서는 근대에 와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70년대에 무령왕릉의 조사가 되어 그나마 찬란한 백제왕릉에서 중요한 유물이 빛을 보게 되어 신라지역(新羅地域)에서 출토(出土)된 분묘(墳墓)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백제사회(百濟社會)의 귀족층을 비롯하여 불교적(佛敎的)인 화장묘(火葬墓)의 성행으로 부장품을 헌납하지 않았음인지 또는 중국(唐)에서 발령(發令)된 박장령(薄葬令)의 영향인지도 알 수 없다.

고신라시대(古新羅時代)는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보다 고대국가로서의 성립이 늦었고 불교의 전래도 뒤졌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조건으로 중국(中國)의 문물을 수용할 기회마저도 적었다. 그러나 고신라(古新羅)는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의 문화(文化)를 수입하고 여(麗)·제(濟)를 통하여 중국(中國)의 북조문화(北朝文化)와 남조문화(南朝文化)를 이해하면서 귀족적 불교적 문화를 발전시켜 호화롭고 정교하고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켰던 나라가 고신라(古新羅)이며, 분묘조사(墳墓調査)에서 많은 양의 금속공예품(金屬工藝品)이 출토(出土)되었다. 그러나 이런 귀중(貴重)한 유물(遺物)이 고신라(古新羅)의 일반 민중까지 널리 패용한 것은 아니고 왕실(王室)에서만 유행(流行)된 것이고 또 이들의 분묘(墳墓)에서만 각종의 귀금속(貴金屬), 장신구(裝身具)가 출토(出土)되고 있다.

이러한 삼국시대(三國時代) 분묘(墳墓)에서 출토(出土)된 유물이 많이 있지만 신발(식리(飾履))이 출토(出土)되는 분묘(墳墓)에는 대부분 금관(金冠)이나 금동관(金銅冠)이 함께 출토(出土)되는데 우선 신발(식리(飾履))이 출토(出土)되는 것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시기적(時期的)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까 한다.

## 2. 유적별(遺蹟別) 출토(出土) 예(例)

현재(現在) 우리 한반도(韓半島) 분묘(墳墓) 발굴조사(發掘調査)에서 신발(식리(飾履))이 출토(出土)된 분묘(墳墓)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조사(調查)된 유적(遺蹟)을 확인한 바 15기에 달하고 있다. 출토(出土) 당시 유물의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몇 점 안 된다. 그래서 형태(形態)와 출토지가 확실한 유적지별(遺蹟地別)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 1) 익산 입점리 1호 고분

입점리 고분군은 전북 익산군 웅포면 입점리 산 17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 가.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입점리(笠店里) 고분(古墳)은 대목령(大木嶺)에서 남동(南東)으로 뻗고 있는 능선(稜線)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古墳)의 형태(形態)는 원형(圓形)이며 봉분(封墳)은 갈색사질토(褐色砂質土)로 봉토(封土)를 축조(築造)하였고 고분(古墳)의 내부구조(內部構造)는 현실(玄室)과 선도(羨道)를 가진 횡혈식(橫穴式) 석실분(石室墳)으로 능선구릉(稜線丘陵)에 풍화(風化)된 암반(岩盤)을 파내어 「ㄴ」자(字) 형태(形態)로 축조(築造)를 하였다. 현실(玄室)의 평면(平面)은 구형(球形)이고 동(東), 서(西), 남(南), 북벽(北壁)은 자연귀석(自然鬼石)을 가지고 편평한 면(面)을 고르게 맞추어 쌓아 축조(築造)하였으며 80~90cm까지는 수직으로 벽면(壁面)을 쌓고 그 위로부터는 사벽(四壁)을 맞추어 실룡형식(室隆形式)의 천정(天井)으로 두껍돌(30~40cm) 4매(枚)를 사용(使用)하였다.

바닥에는 부석(敷石, 20~30cm)을 전체적으로 깔은 것 같고 선도(羨道)는 현실동편(玄室東便)에 치우쳐서 남쪽으로 붙어 있다. 현실(玄室) 바닥 처리(處理)는 풍화(風化)된 암반(岩盤)을 깎아내어 요철이 심하므로 정면처리(整面處理)와 습도를 제거(除去)하기 위해서 굴 껍질과 조개껍질을 갈아서 점토(粘土)와 사질토(砂質土)를 혼합(混合)하여 전체적(全體的)으로 피복을 하고 그 위에 부석(敷石)을 깔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석실분(石室墳)의 배수로(排水路)는 선도(羨道)입구의 중앙(中央)에 위치하는 곳에 폭(幅) 13~15cm로 굴갱(掘坑)을 남(南)으로 뻗게 나오다가 선도(羨道)에서 340cm 부터는 암거(暗渠)를 설치(設置)하여 동(東)쪽으로 휘어지게 만들었다.

선도(羨道) 바닥은 현실(玄室)과 달리 점토(粘土)를 개석(蓋石)위에 덮고 숫을 혼합(混合)하여 피복한 흔적(痕迹)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다. 개석(蓋石)으로 처리한 천석(川石, 25~35cm)을 들어내어 확인한 바 밑에는 굴껍질, 조개껍질이 깔려 있는 상태(狀態)를 확인했다. 선도(羨道)의 폐쇄(閉鎖)는 자연판석(自然板石) 2매(枚, 70×30cm)를 막음한 후 막돌로 폭 : 81cm 길이 : 126cm 범위로 폐쇄(閉鎖)했다. 이렇게 선도(羨道)를 폐쇄한 후에는 약 15cm 두께로 점토(粘土)를 피복시켜 누수 방지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 나. 동반유물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 일부는 1986년 9월 21일 이 동네에 사는 임낙동(당시 웅포중학 3년)에 의해 익산(益山) 군청(郡廳) 공보실(公報室)에 신고(申告)된 것들이다. 신고(申告)된 유물(遺物)은 금동제관모(金銅製冠帽), 금동제입식(金銅製立飾), 금동제관대(金銅製冠帶),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 은제관상표마함(銀製板狀鑣馬銜), 철제등자(鐵製鐙子), 금동제안금구(金銅製鞍金具), 은제부엽(銀製否葉), 철제교구(鐵製鉸具), 토기호(土器壺), 광구장경호(廣口長頸壺), 단경소호(短頸小壺), 태부직구호(台附直口壺), 직구소호(直口小

壺), 관정(棺釘), 등(等)이다. 이런 유물(遺物)들이 노출(露出)된 상태(狀態)로 놓아두고 신고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다른 곳으로 유출이 안된 것만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신고(申告)된 전기한 유물(遺物)중 금동제관모(金銅製冠帽)와 입식(立飾)만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① 금동제입식(金銅製立飾) : 이 금동제입식(金銅製立飾) 3점(點)은 관식(冠飾)의 일부분으로서 상단부(上段部)에 초화문(草花文)으로 오려서 장식(裝飾)을 리벳트로 한 것이 특이하고 다른 2점(點)은 1점과 같이 상단부(上段部)에 다른 장식(裝飾)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단부(下端部)에는 관대(冠帶)의 부분(部分)에 접합(接合)했던 것 같으나 파손(破損)이 심(甚)해 알수 없는 일이다. 공통적으로 입식(立飾) 중앙(中央)에 길쭉한 도구(道具)로 안에서 바깥으로 두드려 볼록하게 하였으며 입식(立飾)의 형태(形態)를 상단부(上段部)보다 하단부(下端部)가 폭이 좁다. 이것은 바로 좁은 부분(部分)이 관대(冠帶)와 접합(接合)되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양식은 즉 혁화문장식(革花文裝飾)이 부착(附着)되어 있는 것으로 나주심남면(羅州審南面) 신촌리(新村里) 9호분(號墳) 출토(出土) 금동관(金銅冠)과 같은 수법(手法)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크기는 15~12cm, 폭 2~3cm 된다.

② 금동제관모(金銅製冠帽) : 반원형(半圓形)의 금동판(金銅板) 2매(枚)를 左, 右에 맞붙인 복륜(覆輪)이며 머리에 쓰는 고깔 모양의 관모(冠帽)는 고기 비늘 같이 문양(文樣)을 압날(押捺)하고 밑 부분에는 점열로 처리하였다. 밑 부분 끝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다른 물건을 붙인 것이 아닌지 생각되어진다. 뒷면에는 긴 촉을 휘어지게 하고 끝 부분에는 반구형(半球形)의 장식(裝飾)이 붙어 있는데 이런 양식은 1873년 일본에서 출토(出土)한 강진선산고분(江田船山古墳)에서 조사(調査)된 것과 같다.

이러한 관모(冠帽)는 우리나라의 신촌리(新村里) 9호(號), 입점리(笠店里) 1號와 형태(形態)는 거의 같으나 문양(文樣)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다.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圖1-①)

이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는 양측(兩側)을 금동판(金銅板)으로 꾸부려 만들었는데 신발의 콧등과 뒤측부분에는 리벳트 식으로 결합을 시킨 것이다. 이 신발은 좌(左)에서 우(右)측으로 금동판(金銅板)을 덮게 하였고 양측(兩側) 판(板) 밑에는 「ㄴ」자식(字式)으로 턱이 지게 갈판을 얹히도록 처리를 한 것이 특이하다. 또 이 신발의 문양은 전체적으로 2조(條)의 격자문내(格子文內)에 삼엽화문(三葉華文)을 압날(押捺)하였다.

이 신발 밑창 앞쪽에 6개, 뒤쪽에 4개 도합 10개의 징을 달게 하였으며 보존처리 결과 신 뒷면의 징이 많이 닳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좌측 신발의 좌측 가장 뒷면의 징은 0.9×1cm 크기의 방형철판(方形鐵板)을 오려 보수(補修)한 흔적(痕迹)이 있어 큰 행사(行事)나 의식(儀式)에서 실용(實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2) 신촌리(新村里) 9호분(號墳)

신촌리(新村里) 9호분(號墳)은 덕산리(德山里) 고분군(古墳群)과 같은 구릉상(丘陵上)에 위치하고 있다.

### 가.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신촌리(新村里) 9號는 방대형(方台形)으로 축조되었고 분구(墳丘)의 정상도 각(角)을 죽인부분이 向으로 볼 때 동서남북(東西南北)을 가리키며 말각방형(抹角方形)으로 평탄

면(平坦面)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분정(墳頂)의 평탄부(平坦部)는 9.2×9.6m의 말각방형내(抹角方形內)에는 상하(上下) 이중(二重)으로 옹관(甕棺) 12기(基)가 매장(埋藏)되어 있었다. 위층에서 조사(調査)된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임(壬), 계(癸) 옹관(甕棺) 등 9기(基)는 계옹관(癸甕棺)이 서(西)쪽을 말각면(抹角面)을 벗어나 분구사면(墳丘斜面)에 매장(埋葬)되었고 임옹(壬甕)도 분구사면(墳丘斜面)과 분정(墳頂)에 걸쳐지는 서북(西北)쪽에 치우쳐 있었으나 기타(其他) 7기(基)는 방형분정(方形墳頂)의 직하(直下)에 매장(埋葬)되어 있었다.

을옹관(乙甕棺)은 구형(矩形)의 분정(墳頂) 중심(中心)에서 남서(南西)쪽으로 약간 치우쳐 매장(埋葬)된 합구식(合口式) 옹관(甕棺)이다. 합옹(合甕)의 전장(全長) 250cm, 대옹(大甕)길이 180cm, 구경(口徑) 106cm, 구연(口緣)두께 6cm, 소옹(小甕)길이 97cm, 구경(口徑) 71.5cm, 구연(口緣)두께 4.5cm이며 을옹관(乙甕棺)의 축(軸)은 40도(度) 서(西)쪽으로 치우친 서북(西北)쪽에 소옹(小甕)을 두고 동남(東南)쪽에 대옹(大甕)을 두었으므로 피장자(被葬者)의 침향(枕向)은 자연(自然) 동남향(東南向)으로 추정(推定)된다.

#### 나. 동반유물

소옹(小甕)의 족부(足部) 주위에 7개의 토기호(土器壺)가 부장(副葬)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옹관편(甕棺片)을 뚜껑으로 하여 덮고 하나는 손잡이가 달린 토기뚜껑이 덮혀 있었다. 내부부장품(內部副葬品)은 피장자(被葬者)의 머리부분에 금동관(金銅冠)이 있고 왼쪽에 장검(長劍), 창(槍), 화살을 두고 목과 팔 부분에 구슬과 팔찌등 장신구(裝身具)가 있으며 발쪽에는 금동제(金銅製)신발과 구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① 금동관(金銅冠) : 관모(冠帽)는 절풍형(折風形) 고깔모양의 내관(內冠)과 입식(立飾)이 붙은 외관(外冠)으로 되어 있다. 외관(外冠)은 폭 3cm 금동판(金銅板)으로 룬대(輪帶)를 만들고 정면(正面)과 좌우(左右)에 높이 25.5cm 폭 14cm 초화형립식(草花形立飾)을 세우고 못으로 접합하였다. 룬대(輪帶)는 상하(上下) 주연부(周緣部)에 점열문(點列文)을 양출(陽出)하고 점열문(點列文) 사이사이에는 7엽화문(葉化文) 9개를 등간격으로 양출(陽出)하였다. 초화형립식(草花形立飾)은 보주형(寶珠形)으로 꽃봉우리를 만들고 화형(花形)을 이룬 가지는 좌우로 각각 세가지를 대칭으로 뻗게 하였다.

내관(內冠)은 금동판(金銅板) 2매(枚)를 오려서 붙였는데 못으로 고정을 시켰다. 이음매는 복륜(覆輪)을 씌웠는데 마치 절풍형(折風形)의 고깔모양이다. 상하(上下) 주연(周緣)에는 한줄의 점열문(點列文)을 타출(打出)하며 구획(區劃)하고 인동문(忍冬文)을 점열(點閱)로 타출(打出)하였고 중앙부(中央部)에도 화엽문(花葉文)을 타출(打出)하였다.

#### 라.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圖1-②)

이 신발(식리(飾履))은 2개의 동판(銅版)을 잘라서 전후(前後)로 못을 박아 조합(組合)한 신으로서 그 하변부분(下邊部分)의 주연(周緣)을 격어 구부러 가는 못으로 신바닥판과 이어 붙였다. 전(全) 표면(表面)에는 2조(條)의 격자문(格子文)으로 타출(打出)하고 신바닥의 격자문내(格子文內)에는 각각(各各) 십자형(十字形)의 사엽화문(四葉花文)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바닥에는 단면(斷面)이 방형(方形)인 못이 스파이크처럼 전후도합 10 박혀 있다. 신발(식리(飾履)) 바닥 안에는 마포(麻布)로 보이는 포백(布帛) 흔적(痕迹)이 남아 있다.

크기는 길이 : 29.7cm 폭 : 9.1cm 높이 : 10cm

### 3) 무령왕릉(武寧王陵)

무령왕릉(武寧王陵)이 위치한 송산리(宋山里)는 공주시(公州市)에서 서북방(西北方)으로 1km 지점인 금성동(錦城洞)과 웅진동(熊津洞)이 연결(連接)하는 곳이다.

#### 가. 구조(構造)

① 분구(墳丘)의 형식(刑式)은 원형분(圓形墳)인데 그 직경(直徑)은 복원(復原)해서 약(約) 20m 내외(內外)이다. 봉토(封土)를 축조(築造)하기 위하여서는 석회(石灰)를 혼합(混合)한 흙을 사용(使用)한 것이 토층(土層) 단면(斷面)에서 확인(確認)이 되었다. 그리고 분구(墳丘)의 동남편(東南便) 쪽에서 봉토(封土)의 유실(流失)을 막기 위하여 구축(構築)한 호석렬(護石列)이 발견(發見)되었다. 형태(形態)가 불규칙한 잡석(雜石)은 4~5층으로 쌓은 것이 높이가 60~70cm 가량 되었다.

② 내부구조(內部構造)는 묘실(墓室), 선도(羨道)로 구분(區分)이 된다.

i) 묘실(墓室) : 묘실(墓室)은 전축(塼築)의 단실묘(單室墓)이다. 평면(平面)이 남북(南北)으로 장방형(長方形)을 이루고 전면(前面) 중앙(中央)에 선도(羨道)가 시설(施設)되었다. 내부(內部)의 규모(規模)는 남북(南北) : 4.2m 동서(東西)폭 : 2.72m이며 선도(羨道)를 지나 묘실(墓室)로 들어가면 바닥이 한층(21cm) 낮아진다. 이 바닥 부분(部分)은 길가 1.05m에 불과하며 그로부터 안쪽은 다시 바닥을 선도평면(羨道平面)과 같은 높이로 높여서 전면(前面)을 관대(棺臺)로 사용하였다.

벽체(壁體)의 전축(塼築)은 길이모쌓기와 작은모쌓기의 방법(方法)을 교대로 되풀이 하였다. 동서(東西)의 벽면(壁面)에서는 아래서 6단(段)까지는 동일(同一)하나, 7단(段)과 8단(段)째의 작은모쌓기로 배열한 전(塼)은 키가 같은 것을 사용(使用)하였다. 이것은 아치형(形)의 천정(天井)을 형성(形成)하기 위하여 제형(梯形)으로 만들어 전(塼)을 사용(使用)한 것이다. 9단(段)째 이상(以上)에서는 계속(繼續)해서 제형전(梯形塼)을 사용(使用)하는 한편 길이모쌓기는 3개로 줄이고 또 그중 가운데의 1개는 횡단면(橫斷面)이 제형(梯形)으로 된 전(塼)으로 바꾸었으므로 천정(天井)의 만곡도(彎曲度)는 한층 더 가(加)해졌다. 13단(段)째가 천정(天井) 중앙선(中央線)에 해당(該當)되는데 그 양(兩)편의 길이모쌓기는 다시 4개(個)로 수(數)를 증가(增加)하고 있다. 이 천정(天井)을 구축(構築)하는데 있어서는 전(塼)들의 이음새에 석회(石灰)를 발라서 견고(堅固)하게 하였다.

전축(塼築) 기술(技術)이 이와같이 규칙적(規則的)이고 정연(整然)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使用)된 전(塼)들은 전부(全部)가 아름다운 연(蓮)꽃무늬로 장식(裝飾)되었으므로 묘실(墓室) 내부(內部)는 매우 장려(壯麗)한 느낌이 감돌고 있다. 연(蓮)꽃의 문양(文樣)은 사용(使用)된 위치(位置)에 따라 몇 가지 종류(種類)로 구분(區分)된다. ① 길이모쌓기전(塼) : 문양(文樣)은 중간(中間)에 사격자(斜格子)의 강상문(綱狀文)을 두고 양끝은 네모지게 구획(區劃)하여 대각선(對角線)의 중심(中心)에 6엽(葉)의 소형(小形) 연화문(蓮花文)을 하나씩 배치하였다. ② 벽체(壁體) 하부(下部)를 구축(構築)한 전(塼)들은 주위(周圍)를 네모지게 구획(區劃)하고 그 내부(內部)에 팔판연화문(八瓣蓮花文)을 반절(半切)한 것과 그 양편에 인동문을 하나씩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맞대고 구축(構築)하였으므로 벽면(壁面)에는 만개(滿開)된 팔판연화문(八瓣蓮花文)의 전형(全形)이 복원(復元)되어 아름답게 배열(配列)된다. ③ 벽체(壁體) 상부(上部)는 작은모를 2구(區)로 나누어 그 내부(內部)에 대각십자선(對角十字線)과 소형(小形) 육판연화문(六瓣蓮花文)을 새긴 전(塼)을 배열(配列)하였다. 이러한 연화문(蓮花文) 조각수법(彫刻手法)은 백제사지(百濟寺址)에서 발견(發見)되는 와당문양(瓦當文樣)과 꼭 같다.

묘실(墓室)의 벽면(壁面)에는 북벽(北壁) 1개 동서벽(東西壁) 2개씩 합해서 5개소에

작은 벽감(壁龕)이 만들어져 있다.

ii) 선도(羨道) : 묘실(墓室) 남벽(藍碧) 중앙(中央)에서 시작된 선도(羨道)길이 2.9m 넓이 1.04m 높이 1.45m이며 천정(天井)은 아아치를 이루고 전(塼)의 문양(文樣)과 축조 방법(築造方法)은 묘실(墓室) 내부(內部)와 비슷하다.

다. 동반유물

금동제관식(金銅製冠飾) 2점(點)이 출토(出土)되었다. 왕(王)과 왕비(王妃)의 것인데, ① 왕비(王妃)의 것이 0.2cm의 금판(金版)을 오려 경부(莖部) 1.6cm 정도로 끝나고 그 후면(後面)에 따로 동으로 된 다른 편(片)의 긴 경(莖)을 접착(接着)한 것이며 동(銅)녹이 화식하부(花飾下部)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 전면관식(前面冠飾)은 경부(莖部)가 절실(折失)되었으나 후면(後面) 것은 구부러진 채 남아 있다. 경부(莖部)에 구멍이 있을 것이나 녹으로 덮여 확인(確認)할 수 없다. 그러나 구부러진 각도(角度)는 왕관(王冠)의 경우와 비슷하며 모자(帽子)의 형태(形態)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였다고 생각된다. 문양(文樣)은 왕관(王冠)과 마찬가지로 끌로 조각(彫刻)한 것인데 역시 인동당초(忍冬唐草)이면서 좌우상칭(左右相稱)으로 정돈되고 영락(瓔珞)이 없어 매우 정연(整然)한 인상(印象)을 주고 있다. 크기는 총고가 22.6cm 폭(幅)이 13.4cm이다.

② 왕(王) : 순금판(純金板) 위에 문양(文樣)윤곽을 선각(線刻)한 다음 절단면(切斷面)이 사면(斜面)이 되도록 예리(銳利)한 조각도(彫刻刀)를 약간(若干) 눕혀서 도려낸 것이며 자연(自然) 윤곽(輪廓)의 선(線)이 고르지 못하고 또 곡선(曲線)이 급(急)한 경우에는 몇 개의 윤곽이 작은 틈날처럼 되어 있다.

라.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圖1-③)

신발(식리(飾履))의 바닥 측판(側板) 모두 동판(銅版)으로 만들고 표면(表面)과 바닥은 서면(西面)에서 다시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을 투작(透作)한 금동판(金銅板)을 씌운 다음 전면(全面)에 원형소영락(圓形小瓔珞)을 착선(縑線)으로 장치(裝置)하였고 바닥에는 따로 장(長) 2.5cm, 기경(寄經) 0.8cm의 스파이크를 각(各) 열(列) 4개씩 쌍열(雙列)8개, 따로 앞쪽 위로 들린 부분(部分)에 1개, 합(合) 9개의 스파이크를 박았다. 신발(식리(飾履)) 내부(內部)에는 얇은 심포(心包)의 앞뒤를 굵은 조포(粗布)로 찢 삼중포(三重布)를 댄 흔적이 남아 있고 신발 표면(表面)에는 황백색(黃白色) 연주(連珠)가 한두 군데 붙어 있는데 이것은 옷에서 뜯은 것 같다. 이 금동이(金銅履)는 그 크기로 보아 실용품(實用品)이 아니고 장례용(葬禮用)의 의품(儀品)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 4) 호우총(壺杆塚)

이 고분(古墳)은 경주시(慶州市) 노면동(路面洞) 고분군(古墳群)의 최남단(最南端)에 위치(位置)하며 적석고분(積石古墳)들 중 이미 발굴(發掘)된 고분(古墳)은 금관총(金冠塚), 금령총(金鈴塚), 식리총(飾履塚), 서봉총(瑞鳳塚)과 같다.

가.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호우총(壺杆塚), 은령총(銀鈴塚) 2묘(墓)의 고분(古墳)도 역시 금령총(金鈴塚)과 식리총(飾履塚)의 두 고분(古墳)과 그 구조(構造)에 있어 상사(相似)한 점들이 있다.

교란 당(當)하지 않은 잔존(殘存)한 적석(積石)은 돌 표면(表面)에서 약(約) 50cm 아래이고 원래 분묘(墳墓) 조성시(造成時)의 평지(平地)는 적석(積石)과 묘광(墓壙)의 위치(位置)와 내용(內容)으로 미루어 뜯 표면(表面)에서 약 50m 아래이고 본래(本來)의 분묘(墳墓) 조성시(造成時) 평지(平地)는 적석(積石)과 묘광(墓壙)의 위치(位置)와 내용(內容)

으로 미루어 뜰 표면(表面)에서 1.30~1.40m 아래였다. 묘분(墓墳)은 광저(壙底) 동서(東西) : 7.30m 남북 : 4.50m이고 본래는 평지(平地)에서 광저(壙底)까지 약(約) 2m이다.

장법(葬法)의 순서(順序)를 보면 묘광(墓壙)을 파고 바닥에 적석(積石)을 2벌 정도 깔고 그 위에 잔자갈을 40cm 두께로 깔고 이러한 기초 작업을 한후 괵(槨), 관(棺)을 안치(安置)후 사면(四面)을 적석(積石)으로 쌓고 다시 평지에서 등글게 적석(積石)을 쌓은 것 같다. 이 적석(積石)위에 다시 점토층(粘土層)이 10cm 내외(內外)로 피복하고 봉토(封土)를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광(壙) 밑에 자갈이 깔린 부분(部分)이 동서(東西) 4.20m, 남북(南北) 1.40m인데 이것을 대략(大略) 괵(槨)의 위치(位置)로 생각할 수 있다. 높이 1.20m이다.

#### 나. 동반유물

① 금동제관(金銅製冠) 출토(出土)는 적석총(積石塚)에 묻힌 금동관(金銅冠)은 관(棺), 괵(槨)이 부식(腐蝕)하여 적석(積石)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파괴되어 자세히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즉 머리에 닿는 대(帶)는 8cm 가량 되고, 4cm 내외(內外)의 폭(幅)을 가진 입주(立柱)가 있고, 그에게 다시 2.4cm의 폭을 가진 가지가 나 있는데 거기에 금동(金銅)줄 끝에 역시 금동으로 된 소형(小形)의 얇은 둥근 영락편을 달았다.

② 명문(名文)이 있는 청동호(靑銅壺) 용기(容器)가 출토(出土)되었는데 기저부(基底部)의 명문(銘文)을 보면 「乙卯年 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 을묘년(乙卯年)을 어느 해에 해당(該當)시키겠느냐가 문제(問題)인데 이것은 고구려(高句麗) 광개토왕(廣開土王)은 서기(西紀) 391년에 왕위(王位)에 올라 서기(書記) 412년에 승하(昇遐) 하였는데 3年 후인 415년이 즉 을묘년(乙卯年)에 해당한다.

#### 다. 금동제식이(金銅製飾履)

신발(식리(飾履))이 출토(出土)되었는데 완전(完全)히 파손(破損)되어 신발의 형태(形態)를 추측(推測)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형태(形態)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양식(樣式)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 5) 은령총(銀鈴塚)

호우총(壺杆塚)과 은령총(銀鈴塚)은 원래 표형분(瓢形墳)으로 된 쌍묘(雙墓)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축조(築造) 연대(年代)도 동시대(同時代)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러나 어느 것이 먼저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 가.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이 고분(古墳)은 호우총(壺杆塚)과 은령총(銀鈴塚)의 구조(構造)라든지 보여주는 유물(遺物)이 일대(一帶)에서 이미 조사(調査)된 금관총(金冠塚)을 비롯하여 금령총(金鈴塚), 식리총(飾履塚)의 구조(構造)와 성격(性格)이 유사한 점이 많아 시대(時代)의 폭이 없을 것 같다.

특(特)히 같은 봉분내(封墳內)에서 출토(出土)된 호우(壺杆)라는 청동기(靑銅器)가 출토(出土)되어 A.D. 415년이라는 절대연대(絶代年代)가 있어 고분(古墳)의 성립(成立)을 A.D. 415년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단정(斷定)할 수 있다.

#### 나. 동반유물

금동제관(金銅製冠)이 출토(出土)되었지만 호우총(壺杆塚) 금동제관(金銅製冠)보다도 더 심하게 파손(破損)이 되어 그 원형(原形)을 알 수 없음은 유감이다. 출토(出土) 당시 영락(瓔珞)이 달려 있던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서에 기재되고 있다. 금동제(金銅製)의 입식중(立飾中) 파상형(波狀形)으로 된 것은 확인(確認)이 되었으나 직립형(直立形)으로 된 것은

발견(發見)된 것이 없다. 물론(勿論) 이 유물(遺物)이 내관(內冠)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圖2-①)

한 쌍(雙)의 금동(金銅)으로 된 식리(飾履)가 오른쪽 발 끝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피장자(被葬者) 자신(自身)이 그 신발을 벗어 놓고 목관(木棺) 안으로 간 것 같은 인상(印象)을 주었다. 얇은 금동판(金銅板)에 영락(瓔珞)을 달았던 흔적이 있다.

## 6) 천마총(天馬冢)

경주시(慶州市) 황남동(皇南洞)에 20여기가 밀집된 미추왕릉내(味鄒王陵內)에 있는 고분(古墳)이다. 이 고분(古墳)은 1973년(年) 경주지구(慶州地區) 관광개발계획(觀光開發計劃)의 일환(一環)으로 조사(調查)가 실시(實施)되었던 고분(古墳)이다.

가.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본 고분(古墳)은 현(現) 지표(地表)로부터 봉토(封土) 정상(頂上)까지 12.7cm 동서저경(東西底徑)이 60m, 남북(南北)이 51.5m의 복발형(覆鉢形) 원형(圓形) 토분(土墳)으로 완형(完形)의 고분(古墳)이다. 고분(古墳)의 외형(外形)으로 나타나는 봉토(封土)의 윤곽선(輪郭線)은 동(東)쪽이 서(西)쪽보다 경사(傾斜)가 급(急)하고 남(南)쪽과 북(北)쪽은 거의 같은 경사면(傾斜面)을 이루고 있다. 봉토(封土) 정점하(頂點下) 6m에서 적석상부(積石上部)에 피복(被覆)된 점토층(粘土層)이 노출(露出)되었다.

적석(積石)의 구조(構造)는 최상단(最上端)의 노출(露出)은 정점하(頂點下) 6m 50cm에서 이었다. 적석상부(積石上部)에 피복(被覆)된 점토층(粘土層)의 노출(露出)은 동반부(東半部) 남동구간(南東區間)과 북동구간(北東區間)에서 선행(先行)되었고 적석유구(積石遺構)를 중심(中心)으로 동서(東西) 18m 남북(南北) 15m의 방형(方形)으로 정점하(頂點下) 8m 60cm까지 파고 내려가 적석(積石) 개부(蓋部)를 완전(完全)히 노출(露出)시켰고, 적석상부(積石上部) 즉 개부(蓋部)의 크기는 동서(東西) 장축(長軸)이 15m 50cm, 남북(南北) 단축(短軸)이 13m 이었고 적석(積石) 중앙(中央)에 동서(東西) 길이 8m 80cm, 남북(南北) 길이 7m 50cm의 함몰부(陷沒部)가 뚜렷하게 노출(露出)되었다. 적석(積石)의 가장 높은 위치(位置)에 있었던 최상위(最上位) 적석(積石)은 동(東)쪽이었고 다음이 서(西)쪽이었으며 남(南)쪽과 북(北)쪽의 적석(積石) 높이는 약(約) 90cm의 차(差)로 남(南)쪽이 높았으며 가장 높은 동(東)쪽 적석(積石)높이와 가장 낮은 북(北)쪽 적석(積石) 높이 차(差)는 1m 40cm이다.

적석(積石) 상부(上部)는 넷들 위에 두께 약(約) 15내지 20cm 정도(程度)의 암갈색(暗褐色) 점토층(粘土層)이 피복(被覆)되어 있고, 이 점토층(粘土層) 바로 밑에는 두께 2내지 5cm 정도(程度)의 암갈색(暗褐色) 사질토(砂質土)에 소력석(小礫石)이 포함된 층이 깔리어 있었다. 또 적석(積石)위에 피복(被覆)된 점토(粘土)는 적석(積石)의 외면(外面) 전체(全體)를 덮은 것이 아니고 적석(積石) 최상위(最上位)에서 2m 60cm 밑의 높이까지만 발리어 있었으며 그 아래쪽의 적석(積石) 측벽(側壁) 외면(外面)은 점토(粘土)를 바르지 않고 봉토(封土)와 직접(直接) 접촉(接觸)되어 있었다.

목곽(木槨)의 구조(構造)는 봉토(封土) 중심부(中心部) 적석하부(積石下部)에 설치(設置)되어 있다. 동서(東西)를 장축(長軸)으로 정동(正東)에서 동남향(東南向)으로 17도(度) 기울어진 위치(位置)에 장변(長邊) 6m 60cm, 단변(短邊) 4m 20cm 크기로 주위(周圍) 벽면(壁面)과 뚜껑이 목재(木材)로 짜여진 목실(木室)이었다. 하면(下面) 바닥은 인두대(人頭大)의 넷들과 잔자갈을 아래로부터 40cm 두께로 상면(床面)을 고르게 하고 두



께 미상(未詳)의 판재(板材)를 동서(東西) 길이 약(約) 3m 50cm, 폭(幅) 약(約) 1m 80cm의 범위(範圍) 내(內)에 올려 놓고 그 위에 단칠(丹漆)을 하였다. 목곽(木槨)의 사주측벽(四周側壁)은 대부분 부식(腐蝕)되어 윤곽(輪廓)을 알아 볼 수 없었으나 다행(多幸)히도 동남(東南) 우각부(隅角部)의 최저층(最低層)에 동서(東西)방향으로 길이 약(約) 50cm, 두께 약(約) 15cm의 부식(腐蝕) 목편(木片)이 발견(發見)되어 목곽(木槨) 측벽(側壁)의 한 면을 추측(推測)할 수 있었다. 이 목곽편(木槨片)은 부식(腐蝕)이 되었지만 단편(短片)에 불과 하였으나 확인(確認)된 상태(狀態)만으로도 이제까지 불확실(不確實)하였던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의 목곽(木槨) 구조(構造) 추정(推定)에 귀중한 자료(資料)라고 생각되었다.

목곽(木槨)의 높이는 약(約) 2m 10cm 내외(內外)로 복원(復原)하여 보면, 적석(積石)은 위로부터 들어낼 때 부식목(腐蝕木)의 노출(露出)이 정상하(頂上下) 10cm~52cm 었으며 이 수치(數値)를 목곽(木槨) 저부(低部)로부터 계산하면 2m 14cm였다.

#### 나. 동반유물

목곽(木槨)의 동단부(東端部) 중앙(中央)에서 나타난 금관(金冠)은 대륜(臺輪) 위에 사지(四枝)의 수지형립식(樹枝形立飾) 3개(個)를 돌리고 그 좌우(左右)에 녹각형립식(鹿角形立飾)을 하나씩 세운 것이다. 출토 당시 우측(右側)의 녹각형립식(鹿角形立飾) 1개(個)와 수지형립식(樹枝形立飾) 3개(個)가 표면(表面)에 노출(露出)되었고 좌측(左側)의 녹각형립식(鹿角形立飾) 1개(個)는 밑에 접하여 들어가 있었다. 금관(金冠)의 외형(外形)은 중압(重壓)에 의해 짓눌려 있었으나 입식(立飾)과 대륜(臺輪)의 표면(表面)에 달린 많은 곡옥(曲玉)과 금제영락(金製瓔珞)은 거의 완전(完全)한 상태(狀態)로 붙어 있었다. 금관(金冠) 내부(內部)에서는 아무런 이물질(異物質)도 검출(檢出)되지 않았으며 바로 밑에서 목관(木棺)의 바닥이 드러났다. 금관(金冠)의 대륜(臺輪) 부근에서 출토(出土)된 삼엽형미식(三葉形尾飾)이 달린 수식(垂飾) 1쌍(雙) 가운데 북(北)쪽(우측(右側)) 1개(個)는 윗고리가 대륜(臺輪)의 하단(下端)과 접(接)하여 출토(出土)되었고 남(南)쪽 것은 대륜(臺輪)의 접친 부분에 수식(垂飾)의 상단(上端)이 끼워 들어가 있었다.

이 금관(金冠)은 피장자(被葬者)가 착용(着用)한 채 관내(棺內)에서 발견(發見)되었으며 비교적 두껍고 넓은 금판(金板)을 오려 구부려서 양단(兩端)에 뚫린 2개(個)의 구멍을 맞추어 꿰어 원형대륜(圓形臺輪)으로 하고 그 위에 출자형립식(出字形立飾) 3개(個) 녹각형립식(鹿角形立飾) 2개(個)를 세운 전형적(典型的) 신라금관(新羅金冠)이다. 대륜(臺輪)에는 주연(周緣)부 상하(上下)에 각각(各各) 타출점렬(打出點列)로 평행선대(平行線帶)를 돌리고 그 내부(內部)에 소원(小圓)을 대향위(對向位)로 배열(配列)한 파상선(波狀線)을 넣었고 이 평행선대(平行線帶)에 각(各) 일렬(一列), 중간부(中間部)에 1열(列) 계(計)3렬(列)의 양기원개형(陽起圓蓋形)을 돌려 거기에 각(各) 1개(個)씩의 원형영락(圓形瓔珞)을 금사(金絲)로 매달고 따로 후두부(後頭部)를 제외(除外)한 전주(全周)에 9개(個)의 비취곡옥(翡翠曲玉)을 역시 금사(金絲)로 매달고 있다. 이 곡옥(曲玉)들은 장(長) 3.4~5.9cm 정도의 비교적(比較的) 큰 것이며 3개(個)를 제외(除外)하고는 머리에 각선렬(刻線列)을 가진 고식형(古式形)이다.

한편 출자형립식(出字形立飾)은 기부(基部)의 쌍공(雙孔)에 금(金) 못을 박아 대륜(臺輪)에 고정(固定)시킨 것이며 넓은 주간(主幹)에 좀 얇은 횡지(橫指) 4개(個)를 배치(配置)한 것으로 가지 끝은 모두 양파형(形)이다.

그리고 전체(全體)의 윤곽(輪廓)을 따라 2조(條)의 타출점렬(打出點列)을 돌렸고 주간

(主幹)에는 14개(個) 횡지(橫枝)에는 양과형에 1개(個), 직각(直角)으로 꺾이는 부분(部分)에 각(各) 1개(個)씩의 타출원개형(打出圓蓋形)을 두고 거기에 금사(金絲)로 원형영락(圓形瓔珞)을 1개(個)씩 매달고 다시 그 영락(瓔珞)과 영락(瓔珞)사이에 쌍공(雙孔)을 뚫어 금사(金絲)로 소형옥(小形玉)을 1개(個)씩 매달고 있는데 이 곡옥(曲玉)은 주간(主幹)에 5개(個), 횡지(橫枝)에 각 2개(個)씩 합(合)13개(個)이며 주간정부(主幹頂部)의 1개(個)를 제외(除外)하고는 3개(個)씩이 횡렬(橫列)하여 상하(上下)4단(段)으로 되도록 배치(配置)하였고 또 곡옥(曲玉)은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게 하여 시각적(視覺的)으로나 중력면(重力面)에서 안정(安定)을 이루도록 용의(用意)하고 있다. 한편 녹각형(鹿角形)에는 좌우(左右)에 각(各) 2지(枝)씩 분지(分枝)가 나와 있고 점렬윤곽(點列輪廓), 원형영락(圓形瓔珞), 주간(主幹)에 5개(個)의 소형곡옥(小形曲玉)이 달려 있다.

이 관(冠)에는 따로 소환(小環)에 장(長) 각각(各各) 23.5cm, 5cm의 대소(大小) 두줄기 패식(佩飾)이 달린 이식형(耳飾形)장식이 일쌍(一雙) 달려 있는데 금관대륜(金冠臺輪)에는 분리(分離)되어 있고 대륜(臺輪)에는 따로 이 장식(裝飾)을 장착(裝着)할 장치(裝置)가 없어 어디에 어떻게 매어 달았던 것인가는 확실(確實)히 알 수 없다.

또한 금동관(金銅冠)은 부장품수장궤(副葬品收藏櫃) 상면(上面)에서 파편(破片)으로 출토(出土)되었으며 파편(破片)의 일부(一部)는 그 보다 서편(西便)의 동편석단(東便石壇) 위에서도 수습(收拾)되었다. 대륜(臺輪)위에 3개(個)의 수지형식(樹枝形飾)만을 세운 간단한 형식(型式)의 금동관(金銅冠)이지만 부식(腐蝕)과 파손(破損)이 심하여 파편(破片)의 일부(一部)만 수습(收拾)되었다. 대륜(臺輪)의 안쪽에 붙여 높이 약(約) 20cm되는 삼지(三枝)의 수지형립식(樹枝形立飾) 3개(個)가 세워졌는데 각지(各枝)의 상단(上段)은 금관(金冠)과 마찬가지로 상단(上段)은 양과형으로 되어 있다. 입식(立飾)의 하단(下端) 폭(幅)은 2.2cm, 상단폭(上段幅)은 1.7cm로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좁아지는데 측지(側枝)에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좁아진다. 입식(立飾)의 주연(周緣)에 따라 한줄의 점선문(點線文)이 타출(打出)되었으며 대륜(臺輪)도 주연(周緣)에 따라 각기(各己) 두줄의 점선문(點線文)이 타출(打出)되고 그 안에도 점선(點線)으로 된 파상문(波狀文)을 타출(打出)하였다. 입식(立飾)의 분기점(分岐點)과 측지(側枝)의 꺾이는 부분(部分), 각지(各枝)의 상단(上端)에는 원좌(圓座)를 타출(打出)하여 여기에 원형영락(圓形瓔珞)을 달았으며 대륜(臺輪)에도 군데군데 원좌(圓座)와 영락(瓔珞)이 달려 있던 흔적이 보이고 있다. 대륜편(臺輪片)은 극히 일부(一部)만 검출(檢出)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일부(一部)만을 부장(副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 라.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圖2-②)

이 식리(飾履)는 목관(木棺) 서편석단(西便石壇)의 북(北)쪽에 치우친 곳에서 출토(出土)되었다. 전면(全面)에 부식(腐蝕)과 파손(破損)이 심하여 정확(正確)한 원형(原形)은 알아보기가 어려웠으나 일부(一部) 파편(破片)으로 그 부분적(部分的)인 원형(原形)만을 파악(把握)할 수 있었다. 식리(飾履) 표면(表面)은 앞 코를 제외(除外)한 전면(全面)에 연속(連續)된 T자형(字形)을 투조(透彫)하였으며 표면(表面)에 원형(圓形)의 영락(瓔珞)이 촘촘히 달려 있다. 바닥은 안쪽에 투조(透彫)되지 않은 금동판(金銅板)을 대고 겉에는 섬유질(纖維質)등 유기물(有機物)을 붙여 여기에 네모난 못을 군데군데 박고 그 사이사이에는 원형영락(圓形瓔珞)을 달아 금동판(金銅板)에 고착(固着)시켰다. 출토(出土)당시(當時) 섬유질에 고착(固着)된 못은 섬유질이 부식(腐蝕)됨에 따라 못만 따로 분리(分離)되어 나왔고 또 원형(原形)도 파손(破損)이 심(甚)하였지만 길이 30cm 내외(內外)

의 크기로 추정(推定)되었다. 앞 측과 뒤 측을 접합한 상태(狀態)가 보이고 있다.

### 7) 금관총(金冠塚)

이 지역(地域)은 개괄적(概括的)으로 정확히 구별(區別)하면 즉 박문환씨(朴文煥氏) 가옥(家屋)의 전면 도로(道路)로부터 西쪽 60尺인 천교회당측(天教會堂側)에 있는 고분 잔토(古墳殘土)의 西쪽 60尺인 점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동서(東西) 약(約) 16尺 남북(南北) 약(約) 7척(尺)의 장방형(長方形)의 구역(區域)이다. 또 이 지역의 수준위(水準位)는 대략(大略) 도로면(道路面)과 동일(同一)하며 유물(遺物)은 이 보다도 아래에서 약(約) 1.2척(尺)의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지역에는 발굴할 때 목재(木材)가 남아 있는 것이 대단히 많으며 그 일부분(一部分)을 채취(採取)하여 지금 아직 보존(保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즉 목조(木造)의 관곽(棺槨)을 형성(形成)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단지 이들의 구조부(構造部)는 목재(木材)가 부식(腐蝕)하기 때문에 상부(上部)에 있는 적석(積石)이 낙하(落下)하였기 때문에 발굴(發掘)당시(當時) 이미 그의 입면형(立面形)을 볼 수가 없었지만 제녹(諸鹿) 대판등(大坂等) 제씨(諸氏)의 조사(調査)와 우리들의 조사(調査)때 그 일부(一部)를 재발굴(再發掘)하여 얻은 지견(知見)과 잔유목재(殘有木材) 형상(形狀)으로 보아 그 구조(構造)의 일반적(一般的)인 것을 엿보면 근접(近接)한 것은 일찍이 다행(多幸)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가. 고분(古墳)의 구조(構造)

곽(槨)의 구조(構造)는 관(棺), 곽부(槨部)는 적석(積石)의 대략(大略) 기저면(基底面)에 존재(存在)하고 있었는데 그 저부(底部)는 약(約) 1척(尺)3촌(寸) 황갈색(黃褐色)의 점토층하(粘土層下)를 파 들어간 것으로 여기에는 주위(周圍) 적석(積石)의 석혼(石魂)보다 더 훨씬 작은 직경(直徑) 5,6촌(寸)의 돌을 쌓고 땅을 굳게 다진 후 두께 3촌(寸)으로 목곽(木槨)의 저판(底板)을 까는데 편리하게 하였다. 다음 곽(槨)의 사주(四周)는 커다란 둥근돌을 대략 내측(內側)의 면(面)을 맞추어서 일렬로 쌓여 있었던 것을 확인(確認)할 수 있는데 이 석렬(石列)은 제녹씨(諸鹿氏)에 따르면 곧바로 목곽(木槨)에는 접(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若干)의 사이를 두고, 그 사이에는 밀바닥과 같은 작은 돌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목곽(木槨)의 평면형(平面形)은 가늘고 길며 내부(內部) 간격은 6척(尺)6촌(寸)으로 표시(表示)하고 있다. 그 옆판(板)은 원래 6척(尺)6촌(寸) 각목(角木) 정도의 목재(木材)를 가로 쌓은 것으로 생각되며 소력석(小礫石)으로 쌓은 것을 확실히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그 길이는 서단(西端)에서 십척(十尺)까지는 확실(確實)하게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지만 최초(最初)의 발굴부분(發掘部分) 즉(即) 동반부(東半部)의 조사(調査)가 불충분(不充分)하였기 때문에 전체(全體)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웠다. 단지 이 동반부(東半部)에 있었던 동제개부사이호(銅製蓋附四耳壺) 및 바닥에 두께 3촌(寸)의 목재(木材)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곽(槨)은 또한 그 부분(部分)에도 이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나. 동반유물

금동제판(金銅製板)으로 만든 대륜(臺輪)에 선단(先端)이 보주형(寶珠形)인 입식(立飾)을 5개(個) 세웠다. 대륜(臺輪)의 앞면과 좌우(左右) 양측에 세운 입식(立飾) 3개(個)는 작은 가지가 뻗어 3단의 연속산자형(連續山字形)을 이루고, 후면의 좌우(左右) 양측의 입식(立飾) 2개(個)는 파상(波狀)으로 굴곡되고 좌우(左右)로 뻗은 소지(小枝)도 서

로 엇갈리어 녹각형(鹿角形)을 이루고 있다. 대륜(臺輪)의 상하 주연(周緣)에는 타출점선파상문(打出點線波狀文)이 돌리고 입식(立飾)의 주연(周緣)에는 윤곽(輪廓)에 따라 타출(打出)하여 이중점선문(二重點線文)을 돌렸다. 대륜(臺輪)과 입식(立飾) 표면(表面)에는 원형소영락(圓形小嬰珞) 130개(個)와 비취곡옥(翡翠曲玉) 57개(個)를 금선(金線)으로 꼬아 매어 달았고 대륜(臺輪)의 좌우(左右)에는 긴 수식(垂飾)이 달려 있다. 크기는 높이가 약(約) 44.42cm 대륜경(臺輪徑)이 19cm 폭이 3cm이다.

다.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圖3-①)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가 2켢레 출토(出土)되었는데 그 형태(形態)가 좀 달라서 한 켢레는 소식부투조리(小飾附透彫履)이고 다른 한 켢레는 화형좌부리(花形座附履)이다. 전자(前者)는 부식(腐蝕)으로 외피(外被)의 전반(前半)만이 유존되었는데 밑판은 1매의 얇은 동판(銅板)으로 만들고 외측전반(外側前半)은 둥그스럼하게 하고 후반부(後半部)는 좌우(左右) 뒤 3매의 동판(銅板)을 밖으로부터 밑을 구부려서 밑판의 가장자리에 고정시켜 조립하였는데 외측전면(外側全面)에 「T」자(字)형을 교차로 배치하고 밑판까지 원형영락(圓形嬰珞)을 달았다. 저부(底部)의 공흔(孔痕)에 의하면 약(約) 87개(個)의 영락(嬰珞)을 달은 듯하다. 그리고 이저(履底) 외면(外面)에는 능견(綾絹)과 포(布)의 일부가 부착되어 있었다. 후자(後者)는 금동박판제(金銅薄板製)로서 앞부분은 고삼각형상(孤三角形狀)이며 저부(底部) 외면(外面)에는 31개(個)의 화형(花形)을 정제(整齊)하게 배열하였고 내측에는 능견(綾絹)과 포(布)의 2,3중으로 되었고 목질흔(木質痕)이 남아 있다.

8) 금령총(金鈴塚)

금령총(金鈴塚) 고분(古墳)은 노동리(路東里)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금관총(金冠塚), 식리총(飾履塚), 서봉총(瑞鳳塚)의 유물(遺物)과 구조(構造) 성격(性格)이 유사하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동반유물로는 금관(金冠)이 출토(出土)되었는데 이 금관(金冠)은 대륜(臺輪)에 선단(先端)이 보주형(寶珠形) 입식(立飾) 5개(個)를 세운 금관(金冠)인데 대륜(臺輪)의 앞면(面)과 양측에 세운 입식(立飾) 3개(個)는 좌우(左右)로 소지가 뻗어 4단의 연속산자형을 이루고 후면의 양측에 세운 입식(立飾) 2개(個)는 파상(波狀)으로 굴곡하고 좌우(左右)로 뻗은 소지(小枝)도 서로 엇갈리어 녹각형(鹿角形)을 이루었다. 대륜(臺輪)의 상하(上下) 주륜(周緣)에는 타출이중점선문(打出二重點線文)이 돌려 있고 소원형영락(圓形嬰珞) 59개(個)로 장식(裝飾)하였으나 곡옥(曲玉)의 배식(配食)과 수식(垂飾)은 없다. 이러한 연속산자형(連續山字形) 입식(立飾)이 4단으로 된 금관(金冠)은 이 금령총(金鈴塚) 금관(金冠)과 천마총(天馬塚) 금관(金冠) 이열(二列)밖에 없다.

이 금령총(金鈴塚) 금관(金冠)은 관내(棺內)의 피장자(被葬者)의 두부(頭部)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금관(金冠) 외에도 백화수피제관모(白樺樹皮製冠帽)와 금동관모(金銅冠帽)의 식금구(飾金具)가 2개분이 출토(出土)되었는데 크기는 대륜경(臺輪徑) 16.4cm라면 두폭(頭幅)이 작은 연소자(年少者)가 피장(皮匠)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圖3-②)

이 식리(飾履)는 관내(棺內) 다리부분 밑에 1쌍(雙)이 출토(出土)되었다. 1쌍(雙)은 동부(東部)의 부장품(副葬品) 중(中)에서 출토(出土)되었는데 파손(破損)이 심하다. 얇은 동판(銅板) 1매(枚)를 저부(底部)로 하고 전반부(前半部)가 둥그스럼하게 되고 후반부(後半部)에는 벽판(壁板)을 구부려서 밑판에 시로 가는 선으로 꿰매 조립하였다. 표면

(表面)에는 작은 영락(瑩珞)이 저판전면(底板全面)과 앞코 부위에 밀착되었으나 후반부는 확실치 않다.

### 9) 식리총(飾履塚)

식리총(飾履塚)에서는 금관(金冠)이 출토(出土)치 않았지만 백화수피제관모(白樺樹皮製冠帽)가 세군데에서 출토(出土)되었는데 원두정(圓頭頂)이 2개(個), 정부(頂部)를 수평으로 짜른 듯한 각형(角形)이 2개(個)로서 4개(個)가 출토(出土)되었는데 4개(個)가 모두 표면에 능격자문(菱格子文)의 줄이 그어져 있다. 백화수피(白樺樹皮)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모형(帽形)을 만들어 꿰맨 것인데 하부에는 띠(대(帶))모양의 덧대를 달았다. 이 관모(冠帽)는 양산부부총(梁山夫婦塚) 출토품(出土品)과 같이 전입식금구(前立飾金具)는 없으나 원두형(圓頭形)의 하나에는 등근 금박(金箔)이 있고, 정부(頂部)가 각형(角形)의 것에는 하단의 대상륜(帶狀緣) 전면에 금박(金箔)을 칠하였다. 이들 모(帽)가 출토(出土)될 때에 금선(金線)도 발견되고 은제뉴장(銀製紐狀)도 부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가.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圖3-③)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가 족부하(足部下) 남, 북에서 한 켤레가 출토(出土)되었다. 이 신발은 한 켤레인데 얇은 금판(金板)에 두껍게 도금(鍍金)을 한 3매로 외피부(外被部)는 좌우(左右) 각 1매를 전후해서 연결하고 하단을 꾸부려 밑판에 연결하였다. 내측에는 혁포(革布)나 목재가 있었던 듯하며 밑판 옆판에 모두 귀갑상(龜甲狀) 연속 구획내(區劃內)에 화염문(火焰文), 쌍금문(雙禽文), 창룡(蒼龍), 웅(熊) 같은 괴수(怪獸), 인면조신(人面鳥身), 봉황(鳳凰), 기타(其他) 조형문(鳥形文)등이 시문(時文)되어 이제까지 알려진 식리(飾履)중에 가장 화려(華麗)하고 정교한 신발이다.

### 10) 황남동(皇南洞) 98호(號) 남북분(南北墳)(황남대총(皇南大塚))

황남대총(皇南大塚)은 신라(新羅) 第13代 임금의 미추왕릉(味鄒王陵)에서 북(北)쪽으로 약(約) 200m, 천마총(天馬塚)에서 동(東)쪽으로 약(約) 60m 봉황대(鳳凰臺)에서 동남(東南)으로 약(約) 200m 거리(距離)에 있으나 외형상(外形上)으로 거의 근접(近接)해 있고 행정지목상(行政地目上)으로는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시(慶州市) 황남동(皇南洞) 53번지(番地) 림(林)으로 되어 있다.

#### 가. 봉토(封土)의 구조(構造)

지상(地上)에서 고분(古墳)의 높이는 북분(北墳)이 22.60m, 남분(南墳)이 21.90m로 북분(北墳)에 비하여 약(約) 70cm가 낮고 동서(東西) 밑지름은 남분(南墳)과 북분(北墳)이 각(各) 82m로 같았으며 남북분(南北墳)을 포함(包含)한 밑지름은 114m이다.

봉토(封土)가 축조(築造)된 상태(狀態)를 보면 봉분(封墳)의 주체(主體)는 목곽(木槨)이 안치(安置)될 위치(位置)가 먼저 정해짐에 따라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남분(南墳)의 봉토(封土) 북편(北便)의 저부(底部) 일부(一部)를 적당히 제거하여 북분봉토(北墳封土)를 쌓기 위해 계획(計劃)된 범위내(範圍內)에 바닥을 정지(整地)하고 목곽(木槨)과 적석(積石)부가 마련되고 봉토(封土)가 덮여졌던 것이다. 북분(北墳)의 축조방법(築造方法)은 조사(調査)에서 밝혀진 것은 남분(南墳)의 북편(北便) 일부(一部)를 잘라내고 후(後)에 축조(築造)되었다는 사실(事實)과 높이 23msk 되기 때문에 봉토(封土)를 조성함에 있어 봉토(封土)를 보다 단단히 하기 위한 다지기라든지 판축 수법을 하지 않고 막쌓기식(式)으로 조성한 흔적이 나타났는데, 봉토(封土) 정상부(頂上部)에서 16.5m 아래에서

확인이 되었다. 적석(積石)의 규모는 동서(東西) 16m 남북(南北) 12.8m로 장축(長軸)이다. 북분(北墳)보다 먼저 마련된 남분(南墳)과 접(接)한 부분(部分)에서는 함몰부(陷沒部) 밖으로 동(東), 서북편(西北便)에 노출(露出)된 적석(積石)의 평면(平面)보다 약(約) 2m 넓게 노출(露出)되었고 사면(四面)에서 적석(積石)이 가장 높은 부분(部分)은 서(西)쪽이었으나 거의 같은 높이이며 가장 높은 서(西)쪽과 가장 낮은 동(東)쪽과의 차이(差異)는 불과 20cm 내외(內外)로 미미했다. 함몰부(陷沒部)는 노출(露出)된 적석중앙부(積石中央部)에 위치(位置)하며 규모(規模)는 동서(東西) 7.2m, 남북(南北) 5.0m인 동서(東西)로 길게 된 장방형을 나타내고 있었고 길이는 6m였다.

적석(積石)의 축조(築造)는 바닥을 고르게 정리작업(整地作業)을 한 후 목곽(木槨)이 놓여야 하는 규모(規模)인 동서(東西) 약(約) 7m, 남북(南北) 약(約) 5m의 범위(範圍)를 벗어나 목곽(木槨)이 놓일 범위(範圍) 둘레를 따라 직경(直徑) 30cm 내외(內外)의 환목(丸木)을 사용(使用)하여 오늘날 건설공사(建設工事)에 이용(利用)되는 두 줄 비계 장치(裝置)와 같은 방법(方法)으로 가설목(架設木)을 사방(四方)으로 설치(設置)하여 세웠다.

이 두 줄의 가설목(架設木)은 남북(南北)의 장축변(長軸邊)에 각 11줄로 44주(柱)와 동서(東西) 양단변(兩短邊)에 각(各) 5줄로 20주(柱), 모두 64주(柱) 가설목(架設木)이 마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줄 기둥간의 앞 뒤 간격(間隔)은 평균(平均) 1.8m, 기둥간의 평균폭(平均幅)은 1.3m이며 두 줄의 모서리는 선자형(扇字形)으로 가구(架構)되었으며 기둥과 기둥은 종(縱), 횡(橫)으로 모두 타가구재(他架構材)가 덧대어져 이 두줄의 가구재(家具材)를 튼튼하게 했고 아울러 적석(積石)을 효과적(效果的)으로 쌓기 위한 기능(機能)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두 줄 가설목(架設木)을 설치(設置)할 경우 동서(東西) 장변(長邊)에 있어서 안줄의 전체(全體)길이는 약(約) 10m 바깥줄의 길이는 약(約) 13.6m로 단변(短邊)의 경우 안줄의 길이 7.7m 바깥줄의 길이 11.3m로 복원(復原)되며 적석(積石)은 이들 내외(內外) 기둥에서 안으로 1.5m 밖으로 1m 내외(內外)에서 쌓여짐으로 이 가설목(架設木)을 뼈대로 하여 외부(外部)까지 적석(積石)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석(積石)에 사용(使用)된 냇들은 길이 30~40cm 크기로 지표상(地表上) 6m에 달(達)하는 높이로 거의 수직(垂直)에 가깝게 쌓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가설목(架設木)은 남벽(南壁) 외부(外部)를 제외한 동(東), 서(西), 북(北) 3벽(壁)의 외부(外部)로 약(約) 30~40도(度) 기울게 버팀목(木)을 받쳐 놓았는데 이것은 적석(積石)을 쌓을 때 적석(積石)벽이 외부(外部)로 쏠리는 것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으로 해석(解釋)된다. 이 버팀목은 적석(積石)을 위에서 들어내는 과정(過程)에서 동(東), 서(西), 북(北) 석벽(石壁)의 적석(積石) 상면하(上面下) 약(約) 1.2m 아래에서 약(約) 3.5도(度) 기운 상태(狀態)의 기둥구멍을 확인(確認)함으로써 밝혀졌고 아울러 적석벽(積石壁)의 바닥 조사시(調査時) 북벽(北壁)의 바닥 일부(一部)에서 이 나무가 박힌 구멍이 확인(確認)됨으로써 밝혀졌다.

지금까지 설명(說明)을 종합(綜合)하면 적석(積石)의 범위(範圍)는 동서(東西) 6.7m 남북(南北) 4.6m 높이 4m의 목곽(木槨)이 들어가고 이 목곽(木槨)의 상면(上面)으로 적석(積石)의 높이에 이르는 위치(位置)까지 역시 냇들로 채움으로써 적석(積石)의 상면(上面)은 수평(水平)으로 되고 말하자면 이 적석(積石)의 구조(構造)는 일종(一種)의 적석석실(積石石室)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목곽(木槨)의 구조(構造)는 북분(北墳)의 봉토(封土) 정상부(頂上部)의 중심(中心)에서는 북(北)쪽으로 약(約)간 치우쳐졌으나 전체적(全體的)인 면(面)에서는 거의 중심부(中

心部)에 해당(該當)되는 적석(積石)의 하부(下部)에 마련되어 있었다. 동서(東西)를 장축(長軸)으로 정동(正東)에서 서북간(西北間)으로 16도(度) 기울어져 동서(東西)길이 6.8m 남북폭(南北幅) 4.6m 크기의 장방형(長方形)으로 주위(周圍) 벽면(壁面)과 뚜껑이 목재(木材)로 짜여진 목실(木室)이었다. 목실(木室) 바닥은 고분(古墳) 축조(築造)당시의 지표(地表)를 고르고 잔자갈로 35cm 높이로 쌓은 바닥에서 목실(木室) 평면(平面) 가장자리에 맞추어 폭(幅) 50cm, 높이 30cm되게 비교적(比較的) 큰 넷들을 두 개(個)로 포개어 쌓아 상면(上面)을 고른 석단(石段) 위의 가장자리에 따라 닿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목곽(木槨)의 벽면(壁面)이 닿는 아래 바닥이 석단(石段)으로 되어 있는 것은 155호(號) 고분(古墳)인 천마총(天馬冢)과 동일(同一)한 수법(手法)이었다.

목곽(木槨)의 크기는 동서(東西)길이 6.8m 목곽내부(木槨內部) 공간(空間)의 높이 4m 측벽(側壁)의 높이 3.7m로 복원(復元)되고 있다. 목곽(木槨)의 축조(築造)는 적석벽(積石壁)이 완료(完了)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어디까지나 추정(推定)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적석벽(積石壁) 목곽벽(木槨壁)이 동시(同時)에 축조(築造)되어 쌓아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이라 할 수 있다.

#### 나. 동반유물

내관(內棺) 안에는 금관(金冠)을 비롯하여 피장자(被葬者)가 직접 착장(着裝)하고 있었던 갖가지 호화 찬란한 장신구(裝身具)들이 매장(埋葬) 당시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비교적 양호하게 제 위치(位置)를 지키고 있었다.

금관(金冠) : 목관(木棺) 내(內) 상부(上部) 피장자(被葬者)가 착장(着裝)하였던 두위(頭位)에서 출토(出土)되었다. 금관(金冠)은 대륜(臺輪) 중앙(中央)과 좌우(左右)에 나뭇가지 장식(裝飾)을 3개(個) 세우고 그 뒤 양쪽에 다시 사슴뿔 장식(裝飾) 2개(個)를 세운 신라금관(新羅金冠)의 전형(典型)을 보여준다. 대륜(臺輪)은 얇은 금판(金板)을 길이 53.5cm 너비 3cm로 오린 금판(金板)머를 양끝의 위아래에 각 2개(個)씩의 작은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겹쳐 맞추어 금속류(金屬類)가 아닌 섬유질이나 가죽끈 같은 것으로 묶어 둥근 관대(冠臺)를 만들었다. 이 관대(冠臺) 위와 아래 가장자리에 표면에서 눌러 만든 침선(針線)으로 두 줄의 평행선대(平行線帶)를 돌리고 두 줄의 평행선대(平行線帶) 사이에도 역시 침선(針線)으로 파상점문(波狀點文)을 새겼으며 만곡부(彎曲部)마다 한 개(個)씩의 작은 원(圓)을 찍었다. 또한 선대내(線帶內) 만곡부(彎曲部) 사이에는 일정(一定)한 간격으로 약간 긴 금실로 원형영락(圓形瓔珞)을 매달았다. 평행선대(平行線帶) 사이공간에 도드라진 지름 0.8cm 정도의 반구형(半球形)좌가 일정한 거리에 있는데 이는 만곡부(彎曲部) 아래가 된다. 원좌(圓座)에는 13개(個)의 곡옥(曲玉)을 금실로 붙였고, 곡옥(曲玉)의 색깔은 연두색, 백색(白色) 등이다. 이 곡옥(曲玉) 사이에는 역시 원형영락(圓形瓔珞)을 달았다. 이는 선대내(線帶內)에 있는 영락(瓔珞)과 수직선(垂直線)이 되어 겹쳐지지 않도록 의장(意匠)하였다.

이 관대(冠臺) 위에 5개(個)의 솟은 장식(裝飾)은 관대(冠臺) 양쪽에 덧대어 각각 3개(個)씩의 작은 금(金)못을 삼각형(三角形)으로 박아 고정시켰다. 나뭇가지 장식(裝飾)은 갖가지가 삼단(三段), 사슴뿔 장식(裝飾)은 어긋나게 사단(四段)으로 되어 있다. 도형화(圖形化)된 각각의 솟은 장식(裝飾)은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도드라진 한 줄의 원형점선열(圓形點線列)을 돌려 윤곽(輪廓)을 뚜렷하게 하였다.

나뭇가지 장식(裝飾), 사슴뿔 장식(裝飾) 모두 끝 부분이 보주형(寶珠形)이며 또한 곡옥(曲玉)을 달았다. 이 보주형(寶珠形)과 갖가지 장식(裝飾)의 꺾인 점(點)과 줄기에는

도드라진 반구형좌(半球形座)가 있다. 줄기와 사슴뿔 장식(裝飾)에 있는 반구형좌(半球形座)에는 곡옥(曲玉)과 영락(瓔珞)이 교대로 장식(裝飾)되었고 만가지장식에는 반구형좌(半球形座)가 없이 곡옥(曲玉)과의 사이에 영락(瓔珞) 2개(個)를 붙였다. 나무가지 장식(裝飾) 줄기의 상단(上段)과 사슴뿔 장식(裝飾) 상단(上端)의 보주형(寶珠形)에는 가장자리 원점문(圓點文) 안쪽에 각가가 5개(個)씩 원형영락(圓形瓔珞)을 달고 있다. 나뭇가지 장식(裝飾)에는 곡옥(曲玉) 16개(個), 영락(瓔珞) 21개(個)씩이고 사슴뿔 장식(裝飾)에는 곡옥(曲玉) 9개(個), 영락(瓔珞) 13개(個)씩 달려 있다. 이 솜은 장식(裝飾)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약간씩 좁아졌으며 곡옥(曲玉)들의 크기 역시 아래 것보다 윗것이 작아졌는데 이것은 금판(金板)으로 된 솜은 장식(裝飾)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는 중량(重量)과 시각적(視覺的)인 안정감(安定感)을 위한 세심한 배려인 것은 물론 예술적(藝術的)인 감각(感覺)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금관(金冠)은 종래의 다른 금관(金冠)과 비교할 때 크기는 약간 작은 편에 속하지만 도합 77개(個)나 되는 많은 곡옥(曲玉)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裝飾)하고 있는 것이 한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피장자(被葬者)는 이 외관(外冠)만을 착용(着用)한 채 발견되었고 목관(木棺) 내(內)에서 내관(內冠)이나 관식(冠飾) 등이 출토(出土)되지 않아 신라(新羅) 왕족(王族)의 관(冠) 착용(着用) 문제(問題)에 대한 하나의 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크기는 높이 27.3cm 대륜(臺輪)너비 3cm 지름 17cm

다. 금동제식리(金銅製飾履)(圖4-①,②,③)

98호(號) 북분(北墳)과 남분(南墳)에서 1쌍(雙)씩 출토(出土)되었다. 대부분(大部分)식리(飾履)는 파손(破損)이 되었는데 출토(出土)된 식리(飾履)의 양식(樣式)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분(北墳) 출토(出土) 신발(식리(飾履))은 바닥판이 편평한 금동판(金銅板)으로 앞부분은 배의 선수(船首) 모양과 같이 위로 약간 올라갔고 밑창은 일반적인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되는 것과는 달리 스파이크를 부착시켰는데 길이는 약(約) 4cm이고 단면(斷面)은 원형이 아닌 방형(方形)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닥에는 대각선으로 나란히 일정한 간격으로 스파이크를 부착하였고 앞바닥과 발등덮개(個)를 이어주기 위한 연결 구멍이 나타나고 있다. 바닥 안면에 사각형의 금동장식(金銅裝飾)이 중간부분에 부착되어 있으며, 뒤꿈치 부분에는 금동편이 조금 남아 있다. 또한 앞 코를 제외한 전면(全面)에 정자형(丁字形)의 투조(透彫)가 연속되었고 문양(文樣) 사이에는 2줄의 금동실로 원형영락(圓形瓔珞)을 촘촘히 달았다.

바닥판(板)과 덮개판(板)의 결합은 바닥판(板)의 가장자리를 약간씩 위로 세우고 윗덮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위단 가장자리는 0.7cm 정도씩 안으로 말아 넣어 바닥판에 약(約) 4cm 간격마다 있는 실구멍 같은 가는 구멍과 결합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바닥의 못은 약(約) 30개(個) 정도가 박혔던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편에는 섬유질 일부가 나타나고 있었다(圖4).

남분(南墳)출토 신발(식리(飾履)) : 금동제투조(金銅製透彫) 식리(飾履) 한 켤레가 부장품 수장부에서 발견(發見)되었다. 출토(出土) 당시 부식(腐蝕)이 심(甚)하여 전체(全體)의 형태(形態)는 어렵고 신바닥과 뒤꿈치 부분으로 신바닥은 1매의 금동판을 따로이 하고 뒤꿈치 부분은 못으로 고정시켰다. 뒤꿈치 부분과 그 외의 편들은 T자형(字形)을 엇갈리게 투각하였고 바닥에는 밑에서 안쪽으로 구멍을 일정하게 뚫어 금동실로 꿰어 원형영락(圓形瓔珞)을 꼬아 달았으나 부식(腐蝕)이 되어 탈락된데도 있었다. T자로 투조(透彫)시



킨 판(板)은 상부(上部), 하부(下部) 주연(周緣)에는 돌아가며 띠를 들렸다(圖5-①,②)

이상(以上)하게도 같은 표형분내(瓢形墳內)에서 남분(南墳)이 북분(北墳)보다는 선행(先行)된 것이 축조(築造)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유물(遺物)중에서 다른 유물(遺物)보다도 신발(식리(飾履))을 관찰(觀察)해 볼 때 형태(形態)와 문양(文樣), 바닥에 스파이크, 영락(瓔珞)을 부착(附着)시킨 것이 다른 이유(理由)는 확실히 성별(性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외에 가야지방(伽倻地方)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식리(飾履)는 전면(前面) 양 측면(兩側面)과 바닥에 원형영락(圓形瓔珞)을 금동(金銅)실로 꼬아서 달았다.

예를들면 양산부부총(梁山夫婦塚, 圖7), 대구비산동(大邱飛山洞) 37호분(號墳)(圖6-②), 경북(慶北) 칠곡군(漆谷郡) 인동면(仁同面) 황상동(黃桑洞) 第1호분(號墳), 대구(大邱) 내당동(內唐洞) 第55호분(號墳)(圖6-③), 이러한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신발(식리(飾履))은 금동판(金銅板)으로 뒤꿈치와 앞 코를 만들었으나 출토(出土) 상태(狀態)가 안 좋고 그 중에서 양산부부총(梁山夫婦塚, 圖7)에서는 금동관(金銅冠)과 함께 출토(出土)되었다. 형태(形態)는 2판(板)의 얇은 금동판(金銅板)을 간단하게 앞 측과 뒤측을 접어서 앞, 뒤측을 못 3개(個)로 연결한 상태이다. 앞, 뒤측 바닥에는 19개(個)의 원형영락(圓形瓔珞)을 달았다. 그리고 밑판 주연(周緣)에는 집선문(集線文)을 짧게 돌아가며 처리(處理)하고 11군데 꺾맨 흔적이 보이고 있다.

### 3. 고찰

이상에서 삼국시대(三國時代) 고분출토(古墳出土) 신발(식리(飾履))에 대하여 고찰(考察)하여 보았다.

그런데 고구려지역에서 출토(出土) 예는 고고민속논문집에 보면 구 남정리 116호 무덤(채엽무덤)과 구 정백리 200호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알려져 있는데 재질은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옷을 입혔다는 기록이 있고 집안승리촌(集安勝利村) 북우산하고분(北禹山下古墳)(圖1-㉔)에서 신발이 출토(出土)되었는데 길이는 약(約) 31cm되고 바닥에는 스파이크를 박고 앞코는 평면을 보면 둥글게 처리를 한 것이 경주출토천마총, 황담대총 북분과 비슷하다. 그러나 황오리(皇吾里) 4호분(號墳)에서 출토(出土)된 백화수피(白樺樹皮)로 신 모양을 만들고 그 외면에 금동판(金銅板)으로 여러 가지 문양을 투조하고 장식한 것이 출토시 상태가 나빠 그 원형을 알 수 없으나 주변에 금동판(金銅板)으로 된 심엽형(心葉形)과 빗살문인 아자문(亞字文) 등(等)을 투조(透彫)한 것이 있으나 어느 부위에 맞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보고자의 말이나,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이외에 백제지역(百濟地域)이나, 신라지역(新羅地域), 가야지역(伽倻地域)(圖6-①, ②, ③, 圖7)에서 출토(出土)된 신발(식리(飾履))를 보면 제작과정(製作過程)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판(金板)이나, 금동판(金銅板)을 오려서 둥글게 앞측과 뒷측을 별개로 하여 접합하는 방법(方法)이 같고, 또 하나는 양옆측을 안 쪽으로 「ㄴ」 자식(字式)으로 꾸부려 깔판이 없도록 하였다. 그 다음 금판(金板)이나 금동판(金銅板)을 꾸부려 예리한 도구(道具)로 두드려 압날(押捺)을 하거나 문양(文樣)을 투조(透彫)로 하는 경우의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은 투조(透彫)없이 영락(瓔珞)을 금동사(金銅絲)로 꼬아 매어달은 점이고, 또 다른 점은 밑창인데 금동침(金銅針, 징같은 모양)을 박아 처리(處理)를 하였는데 백제지역(百濟地域)의 경우를 보면 입점리

1호분, 신촌리 9호분, 무령왕릉 신발(식리(飾履))은 침(針, 징)을 앞 뒤 구분(區分)을 해서 박았고, 신라지역(新羅地域)의 경우 천마총(天馬塚), 황남대총(皇南大塚) 북분(北墳)은 앞 뒤 구분(區分) 없이 바닥 전체(全體)에 박았다는 점이 다르다. 그 대신 백제지역(百濟地域)에서 출토(出土)된 신발(식리(飾履))은 영락(瓔珞)으로 바닥을 처리(處理)한 것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예컨대 신라지역(新羅地域)에서도 다른 점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백제지역(百濟地域) 신발(식리(飾履))은 금동침(金銅針)을 박고 신라지역(新羅地域)은 금동침(金銅針)과 영락(瓔珞)을 혼용(混用)으로 사용(使用)했다는 점이다.

식리(신발)는 전체적(全體的)으로 평면상에서 신의 앞코를 보면 대개가 경주지역 출토(出土)신발의 앞코가 백제지역(百濟地域)에서 출토(出土)된 것 보다 길게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앞코의 길고 짧은 것이 제작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백제지역(百濟地域)과 신라지역(新羅地域) 중에서 유사한 점은 식리총(飾履塚) 출토(出土) 신발은 측면과 바닥에 호화로운 문양(文樣)을 압날(押捺), 압출(押出)한 것이고 신촌리 9호분, 입점리 1호분 출토(出土) 신발(식리(飾履))과 서로 문양은 다르지만 제작(製作) 방법(方法)이 명맥을 이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신발(식리(飾履))은 기본적(基本的)인 방법(方法)으로 압날(押捺), 투조(透彫)는 계속 명맥을 이어왔던 것으로 생각되며 단 실용적(實用的)으로 사용(使用)한 것이냐 아니면 의식용(儀式用)으로 하였느냐는 것은 대부분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의식용(儀式用)으로 사용(使用)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입점리 1호분의 경우를 보면 정(釘)이나 측판(側板)을 보면 보수(補修)한 흔적(痕迹)으로 볼 때 실용적(實用的)인 성격(性格)도 있지만 사용(使用)상 불편(不便)한 감이 있고 중량(重量)을 지탱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황남대총 남분출토(南墳出土) 신발(식리(飾履))에서 보존처리(保存處理)과정(過程)에서 신발내(內)에 섬유질편(圖5-③)이 출토(出土)됨으로 깔판내(內)에 깔았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皇吾里 4,5號 古墳 發掘調査報告 1964.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서 제5책.
2. 익산입점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985, 문화재연구소.
3.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197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4. 황남대총(북분)발굴조사보고서. 198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5. 호우총, 은령총 발굴조사보고서 1946,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책.
6. 慶州金鈴塚 飾履塚發掘調査報告 圖版 1924, 제1책.
7. 慶州金鈴塚 飾履塚發掘調査報告本文 1924, 제1책.
8. 慶州金冠塚と其遺寶 本文上冊 조선총독부, 고적조사특별보고 제3책 1922.
9.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제1책 1923, 조선총독부.
1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17, 조선총독부.
11. 慶州皇吾洞 제1, 33號古墳發掘調査報告 1969, 문화재관리국 고적발굴조사보고 제1책
12. 昭和六年 古蹟調査報告 第1冊(皇南里 82, 83號) 昭和十年 조선총독부
13.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경주 皇南里 제109號 古墳, 皇吾里 第14號분조사보고(墳調査報告))
14. 梁山夫婦塚卜其遺物 圖版 昭和2年 조선총독부.
15. 武零王陵發掘調査報告書 197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6. 고고민속 논문집 1971, 3집(1~107)(황기덕, 박진옥, 정찬영)
17. 고분출토(出土) 부장품연구, 198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8. 羅州瀋南古墳群 1988, 국립광주박물관
19. 「三國史記」色服條
20. 고구려 문화.
21. 古墳時代の研究. 8古墳Ⅱ 副葬品 1991.
22. 彌生古墳時代資料圖錄
23. 研究報告 第3集(福岡市立歴史資料館) 1979.
24. 日本考古學年報(圖版 18~36群馬懸下芝. 谷ツ古墳). 1986 日本考古學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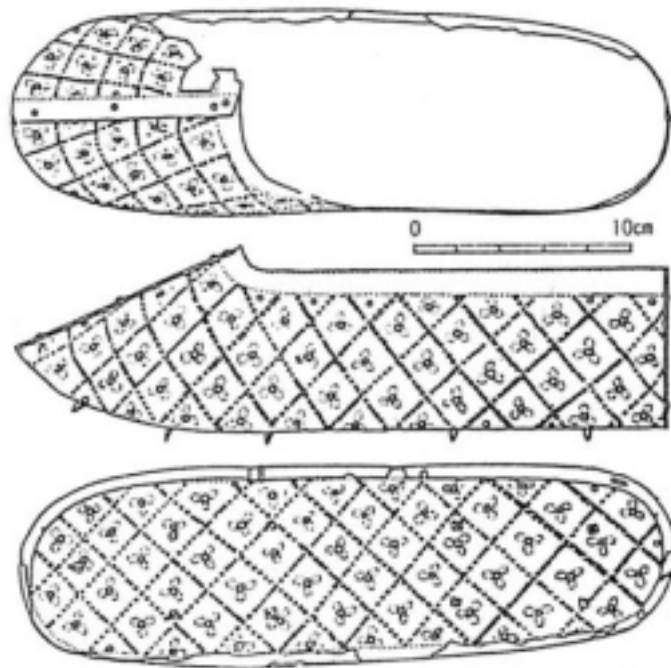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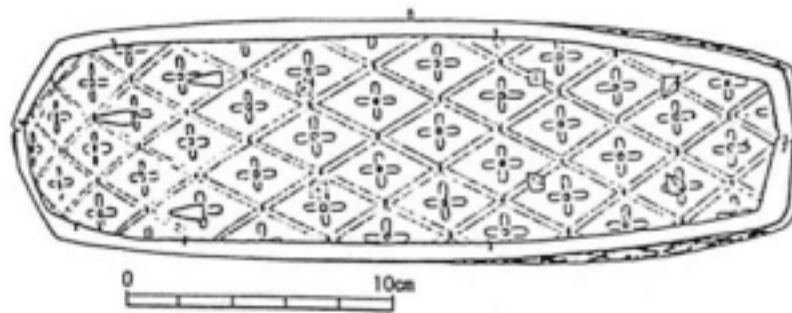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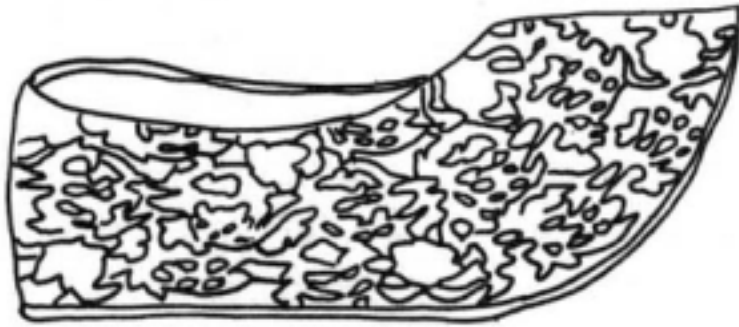
圖1 ① 입점리 1號 高분(신발)

圖1 ① 입점리 1號 高분(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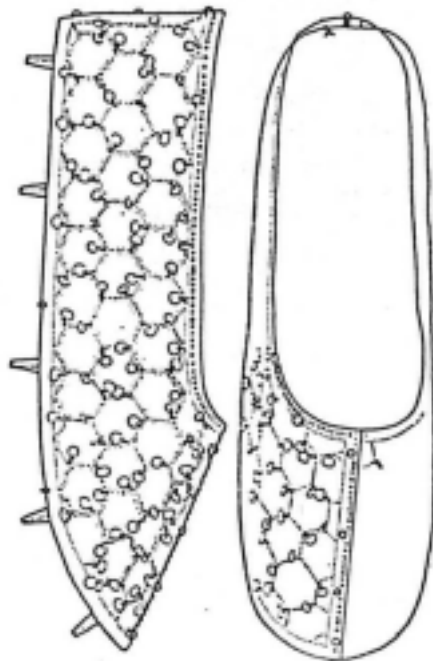
② 新村里 第9號墳出土 飾履(신발)

② 新村里 第9號墳出土 飾履(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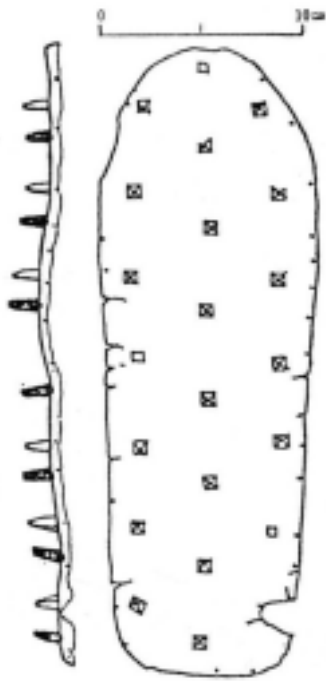
③ 武寧王陵飾履(신발)

③ 武寧陵飾履(신발)



가. 日本江田般山古墳

가. 日本江田般山古墳



나. 集安勝利村北禹山下古墳

나. 集安勝利村北禹山下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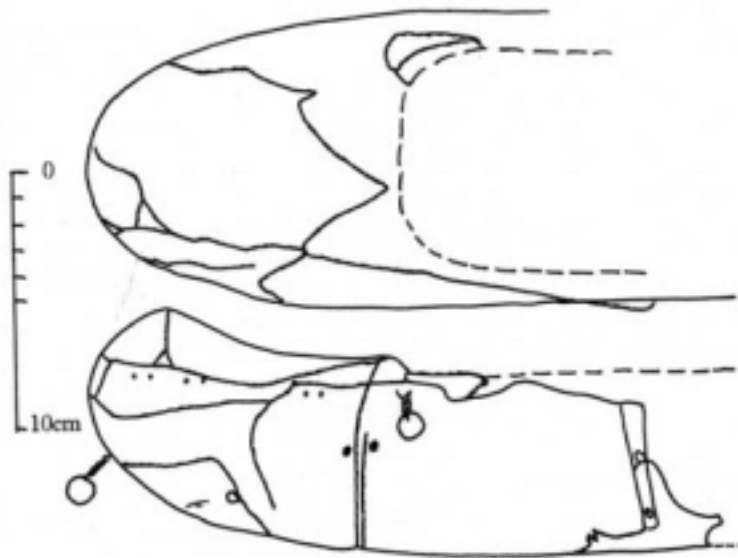


圖2 ① 銀鈴塚 出土 飾履(신발)

圖2 ① 銀鈴塚 出土 飾履(신발)



② 天馬塚 出土 飾履(신발)

② 天馬塚 出土 飾履(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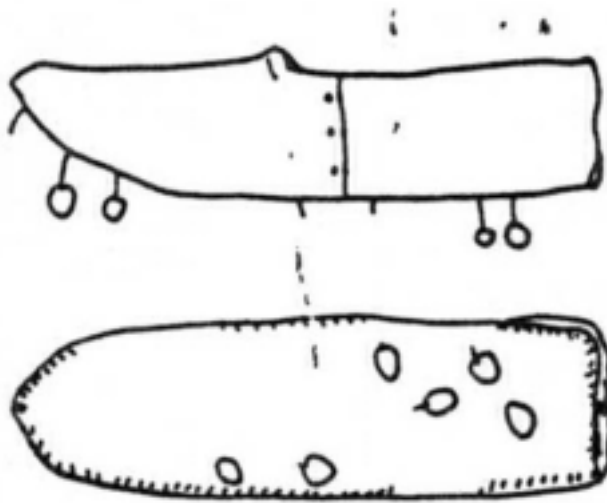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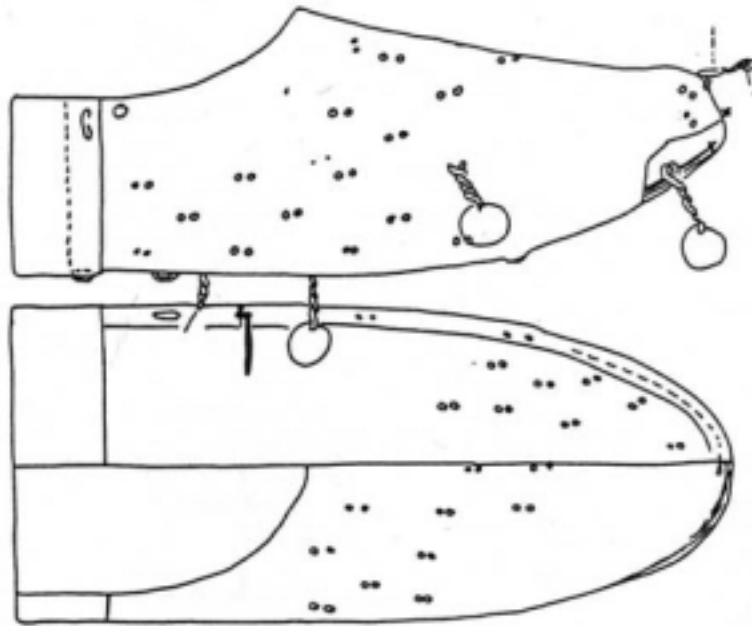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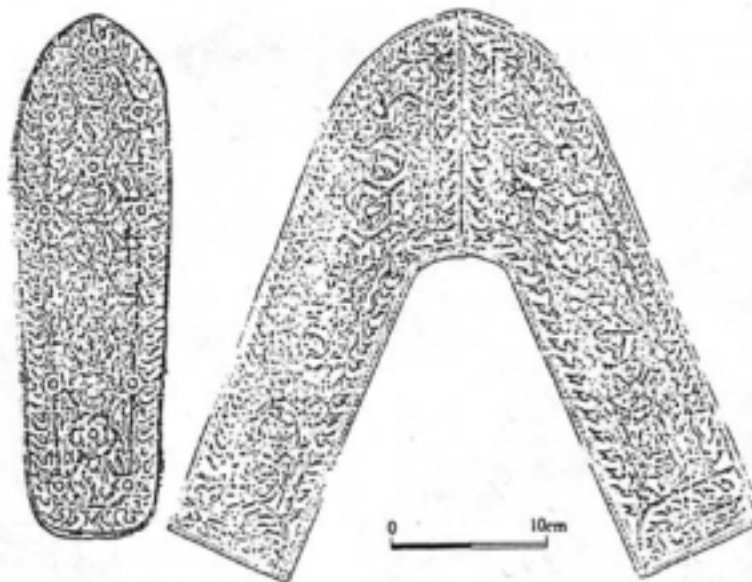
圖3 ① 金冠塚飾履

圖3 ① 金冠塚飾履



② 金鈴塚 出土飾履(신발)

② 金鈴塚 出土 飾履(신발)



③ 飾履塚 出土 飾履(신발)

③ 飾履塚 出土] 飾履(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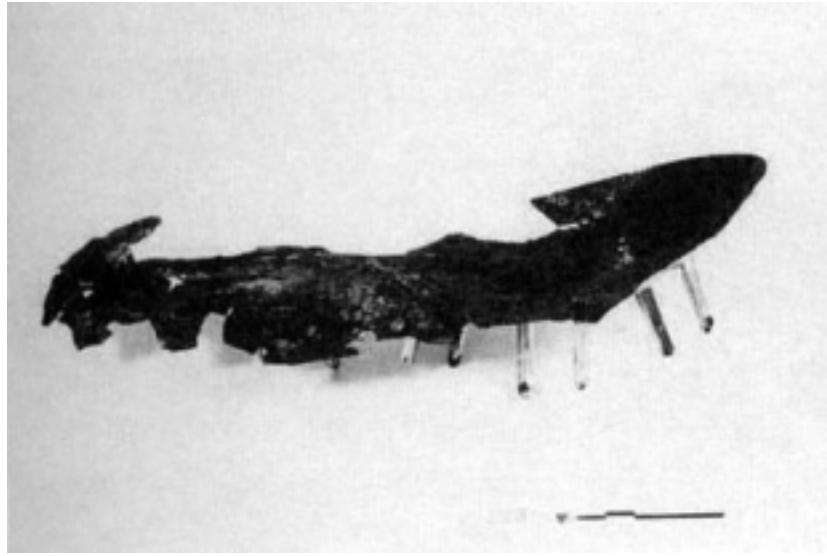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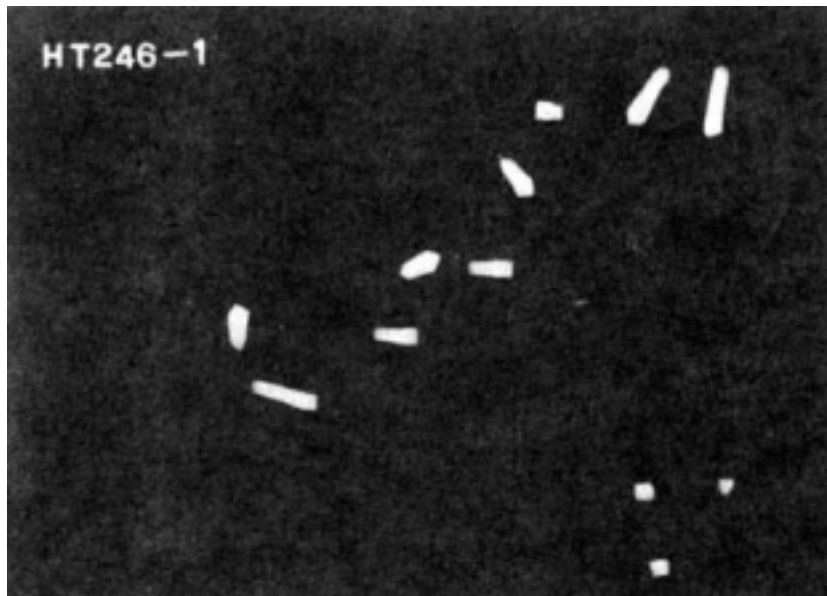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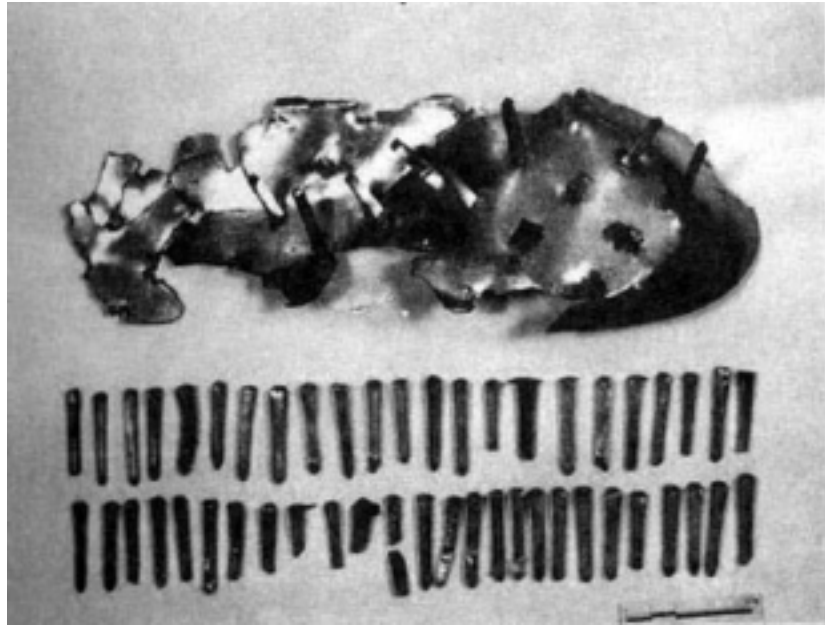


圖4 皇南大塚北墳 保存處理後 狀態 및 X-Ray撮影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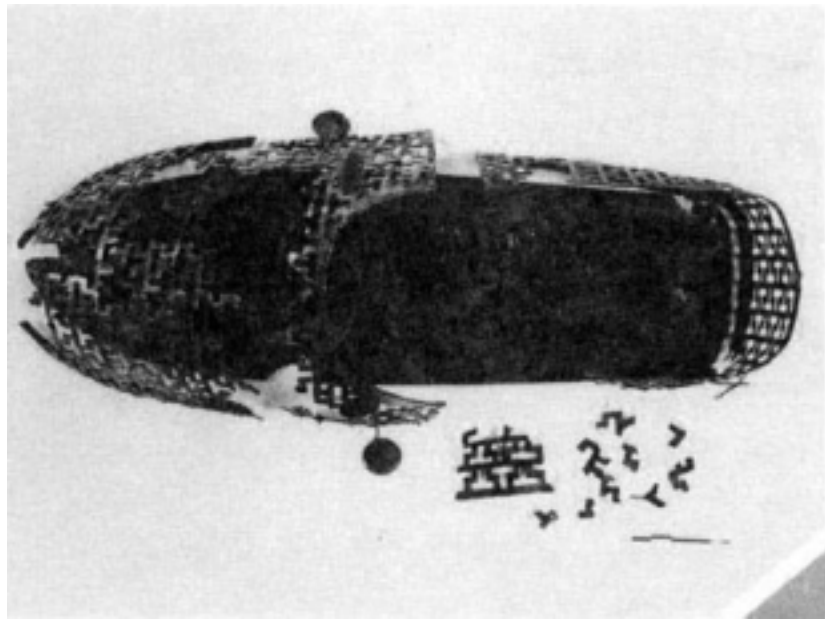


圖5 皇南大塚 南墳 保存處理後 狀態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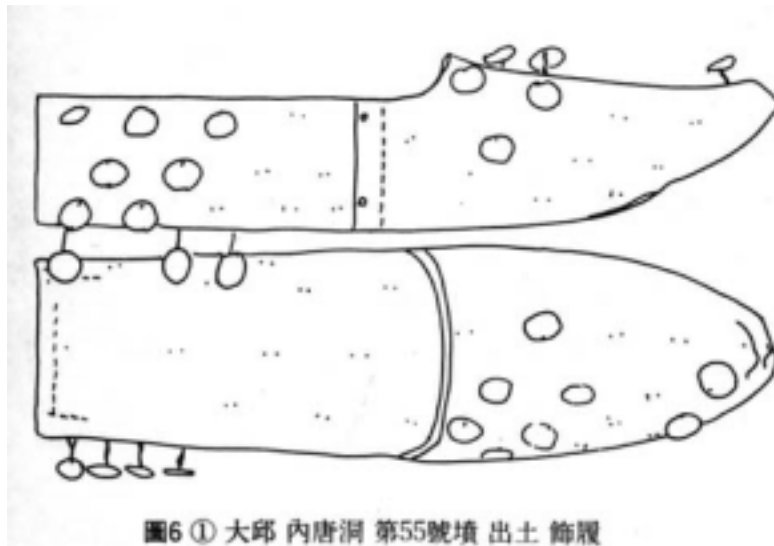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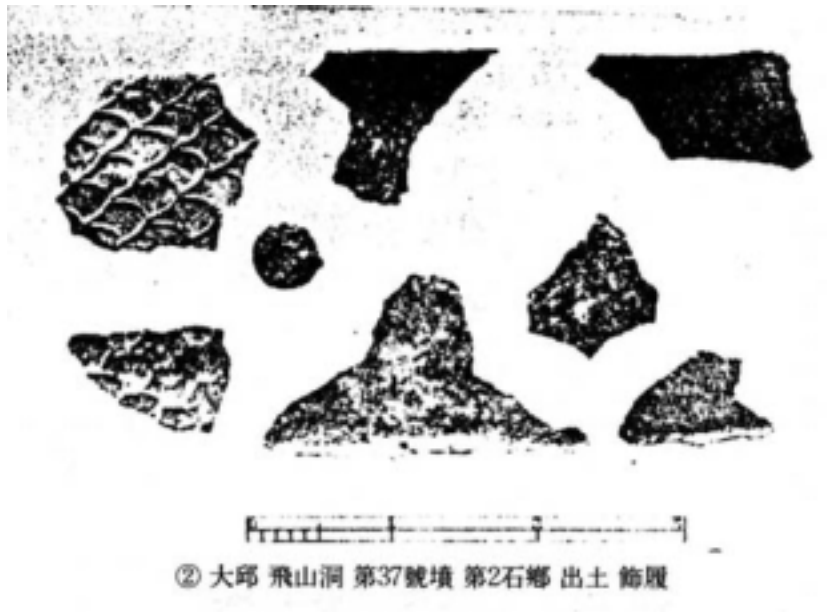


圖6 ① 大邱 內唐洞 第55號墳 出土 飾履

圖6 ① 大邱 內唐洞 第55號墳 出土 飾履



② 大邱 飛山洞 第37號墳 第2石郷 出土 飾履



③ 內唐河 55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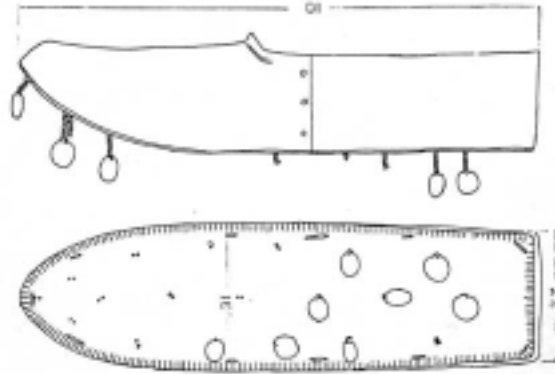


圖7 梁山夫婦塚